

이 대통령-한 총리 첫 주례보고회동 개최 - 'AI 대전환·규제합리화' 등 한 총리 4대 역점 아젠다 논의

-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7월6일(월)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하여 첫 주례보고회동을 가졌다.
- 주례보고회동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, 청와대와 내각의 대응방향을 협의·결정하는 자리이다.
※ (배석)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, 정책실장, 안보실장, 국정상황실장, 내각 국무조정실장
 - 회동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 총리와 사전환담을 갖고, 집권 2년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리가 구심점이 되어 책임감 있게 내각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오늘 회동에서 한 총리는 △AI대전환 △규제합리화 △창업 르네상스 △청년정책 내실화 등 「총리 4대 역점 아젠다」에 대해 보고했다.
- 이에 이 대통령은 한 총리의 AI·IT 분야 전문성과 민간 혁신 경험에 대해 깊은 신뢰를 표하며, “총리가 전권을 갖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규제합리화·창업·청년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- 이어서 한 총리는 「AI·데이터 기반 국민생명 보호 방안」에 대해 보고하였다.
-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“기술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”할 것을 지시하였다.
- 이 대통령과 한 총리는 앞으로도 주례보고회동을 중심으로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·논의하고,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이병호 (044-200-2048)
	기획총괄정책관실	담당자	서기관	김정훈 (044-200-2052)